

국제금융시장 11월 동향 및 12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 영 교 (yoonyk@kdb.co.kr)

심 한 용 (hyshim@kdb.co.kr)

- ◆ (환율) 11월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12월은 무역흑자 등 하방 압력에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과 견고한 미국 경제성장률 등으로 하락은 제한될 전망
- ◆ (금리) 11월 미국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에 따라 약보합, 유로존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로 하락, 일본 금리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 12월 주요국 금리는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 ◆ (주가) 11월 미국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 등으로 상승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무역장벽 구축 우려로 하락, 12월 주요국 주가는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나 국가별 차별화 가능성

□ 11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연준과 한은은 기준금리 25bp 인하, 중국은 대출 우대금리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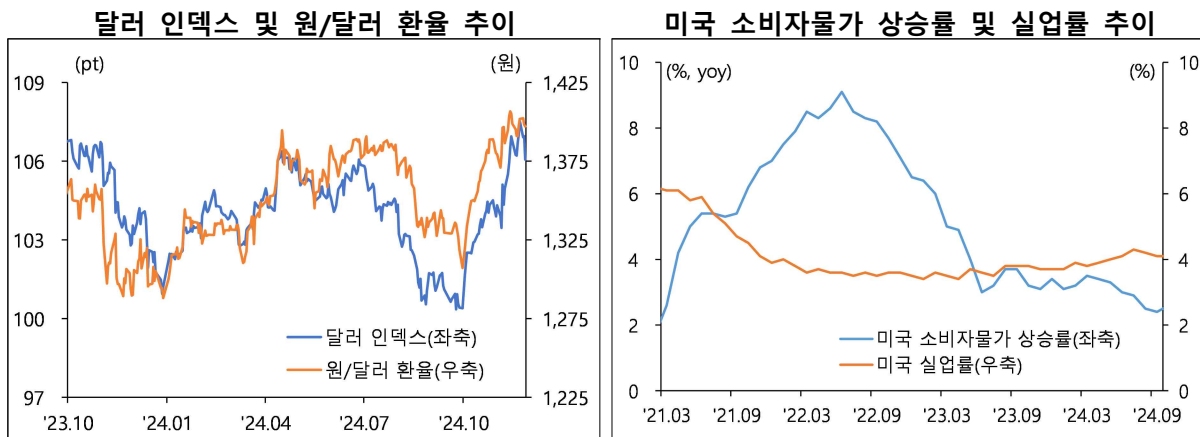
- 美 연준은 FOMC(7~8일)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5.00% → 4.75%)
 -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리스크가 거의 균형(roughly in balance)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 하에 만장일치로 25bp 인하 결정
 - *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yoy) : 3.0(24.6월) → 2.9(7월) → 2.5(8월) → 2.4(9월) → 2.6(10월)
 - 파월 의장은 금번 인하는 여전히 제약적인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재조정(recalibration)하는 과정임을 언급하며 향후 데이터에 따른 정책결정 시사
- 한국은행은 금통위(28일)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3.25% → 3.00%)
 - 물가상승률*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
 -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yoy) : 2.4(24.6월) → 2.6(7월) → 2.0(8월) → 1.6(9월) → 1.3(10월)
 - 이창용 총재는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등의 구조적인 불확실성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였고,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
 - * '24년 한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yoy) : 2.5/2.6(5월) → 2.4/2.5(8월) → 2.2/2.3(11월)
- 中 인민은행(20일), 대출우대금리(LPR) 동결(1년 3.10%, 5년 3.60%)
 - 수출 증가율(24.9월 2.4% → 10월 12.7%) 개선 등 10월 경제지표의 회복이 관측되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금리* 동결로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
 - * LPR금리 1년/5년(%) : 3.45/4.20(24.1월) → 3.45/3.95(2월) → 3.35/3.85(7월) → 3.10/3.60(10월)
 - 중국 당국(8일)은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하여 5년간 10조위안 규모의 재정 정책 실시 발표, 향후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시사
 - * 中 재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하여 미분양주택 및 유휴토지 추가 매입 등을 검토 중

□ '24.12월 주요 국내외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12월 FOMC(17~18일) : 금융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나 11월 FOMC 의사록에서 점진적인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견 등에 따라 25bp 인하 예상, 점도표 변화 등 향후 정책경로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주목받을 전망
*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12월 25bp 인하 확률은 66.5%, 동결 확률은 33.5%('24.11.27일)
- 일본, BOJ회의(18~19일) 및 유로존, ECB회의(12일) : BOJ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시점은 지표에 달려있다는 신중론을 고수하며 일본은 금리동결 전망, ECB는 물가상승률 안정세*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로 기준금리 25bp 인하가 유력
*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 yoy) : 2.5('24.6월) → 2.6(7월) → 2.2(8월) → 1.7(9월) → 2.0(10월)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 (환율) 11월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 등으로 상승세 지속, 12월은 무역흑자 등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미국 경제 성장세 등으로 하락 폭이 제한될 전망
 - 11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및 상·하원 선거 승리(Red Sweep)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의 지속과 러·우 전쟁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
* 住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공습 위험으로 일시적으로 폐쇄 및 직원 철수(11.20일)
 - 12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이 지속 중이며, 견고한 미국 경제성장률('24.2Q 3.0% → 3Q 2.8%) 등으로 하락 폭이 제한될 가능성
* 국내 무역수지(억달러) : 82.9('24.6월) → 34.1(7월) → 36.6(8월) → 66.6(9월) → 31.7(10월)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억달러) : 20.9('24.6월) → 18.6(7월) → △18.5(8월) → △55.7(9월) → △41.7(10월)



	'22년말	'23년말	'24.10월말	'24.11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환율	1,264.5	1,294.5	1,382.4	1,397.0	+1.1%
달러 인덱스	103.49	101.47	104.096	106.060	+1.9%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금리) 11월 미국 금리가 약보합 흐름을 보인 가운데, 유로존은 하락하였고 일본은 상승하며 국가별 차별화, 12월 주요국 금리는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 11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 신정부의 재정적자 전망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에 따라 등락하며 약보합, 유로존은 역대 금리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하락, 일본은 엔화 약세* 등으로 상승

* 엔/달러 환율(엔) : 150.0(7.31일) → 143.6(9.30일) → 156.3(11.14일) → 151.2(11.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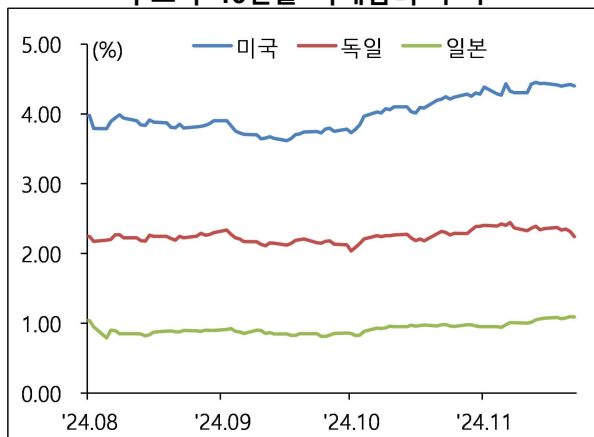
- 12월 미국 금리는 FOMC의 인하 기조 지속, 유로존 금리는 경기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 일본 금리는 우에다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하락 예상

* 10월 유로존 종합 PMI는 전월 50.0에서 하락한 48.1을 기록하며 미진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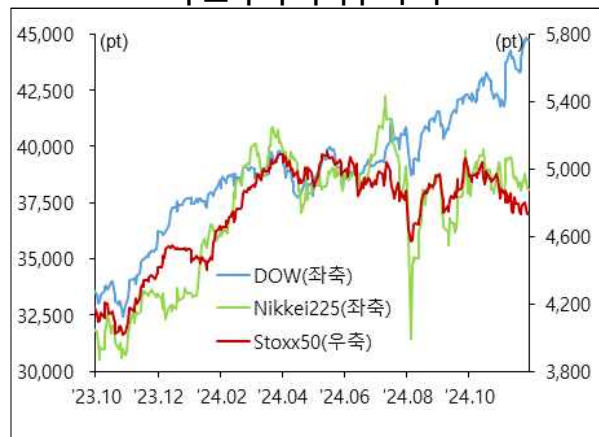
** 금융완화의 추가 조정 타이밍은 대외경제와 자본시장의 위험을 반영하여 결정(11.19일)

- (주가) 11월 미국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 등으로 상승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하락, 12월 주요국 주가는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나 국가별 차별화 가능성
 - 11월 미국 주가는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의 양호한 실적과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 등으로 상승, 유로존과 일본 주가는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장벽 구축 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
 - 12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나, 트럼프 트레이드의 지속 여부, 무역장벽 현실화 등에 따라 국가별 차별화 가능성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22년말	'23년말	'24.10월말	'24.11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3.8748	3.897	4.300	4.263	△0.9%
독일채 10y	2.5710	1.979	2.388	2.160	△9.6%
일본채 10y	0.4220	0.623	0.964	1.060	+10.0%
다우존스	32,875.71	37,385.97	42,141.54	44,722.06	+6.1%
유로 Stoxx 50	3,808.82	4,521.47	4,885.75	4,733.15	△3.1%
Nikkei 225	26,340.50	33,169.05	39,084.15	38,067.18	△2.6%

자료 : Bloomberg